조선사회과학자협회

통 보



2

2021

차 례

절세위인들

오늘의 조선

사진편집물

시 대 어

좌 담

실 화

절세위인들

온 세계를 경탄시킨 김일성동지의 권위

1980 년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당시)을 방문하시였을 때였다.

당시 유고슬라비아를 40 명이 넘는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200 여개의 대표단과 대표들, 각국의 정계, 사회계인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인물들도 방문하였다.

하지만 온 세계의 이목은 위대한 수령님께만 쏠려있었다.

프랑스신문 《몽드》는 《쁠럭불가담운동의 견결한 옹호자이신 **김일성**주석의 참석은 특별히 주목된다.》고 하였고 미국 《뉴욕 타임스》는 유고슬라비아에 도착하는 국가수반들에 대한 보도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제일 첫자리에 모시였다.

유고슬라비아의 지도자들은 동서방의 지도자들이 수많이 모여 진행하는 행사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제일 중심에 모시였고 다른 나라 국가수반들은 모두 계단에 서있도록 하면서도 수령님께서만은 맨 앞줄 중심에 놓여있는 걸상에 앉아계시도록 하였다.

이 사실에 접하고 일본의 한 기자는 **김일성**주석의 유고슬라비아방문은 전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키고있다고, 정말 경이적인 큰 사변이라고, **김일성**주석은 위대한분이시며 아시아의 자랑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기 나라 방문을 체험하면서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집행비서는 자기는 많은 국가수반들이 존경하는 주석동지를 만나뵙기 위하여 줄을 서는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큰 나라 수반들이 주석동지의 가까이에 있었지만 여러 나라 수반들은 그들한테는 관심이 없이 모두 주석동지께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갔는데 자기는 그 화폭을 통해 **김일성**주석동지이시야말로 만사람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시는

위대한 지도자이시라는것을 깊이 느끼게 되였다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정녕 온 세계가 위대한 수령님께 매혹되였고 그이의 위인상과 권위에 머리를 숙이였다.

조선에서 찾은 대답

20 세기 중엽 라틴아메리카의 어느 한 저명한 륜리학자는 한생의 탐구를 총화한 자기의 저서에서 인간에 대한 참된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사랑의 대표자를 찾으려고 력사적인물들과 이름난 정치가들을 비롯하여 유명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더듬었다. 하지만 내가 바라는 《사랑의 신》은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할수 없는 환상적인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썼다.

이 책을 읽었던 에꽈도르의 한 출판사 총사장은 조선을 방문한 뒤 그 륜리학자가 오늘의 조선에 왔었다면 그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찾았을것이라고, 나는 바로 조선에서 그 대답을 찾았다고 감격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이 총사장으로 말하면 조선을 수차례에 걸쳐 방문하고 연 250 여일간이나 체류하면서 평범한 인민들로부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매한 인민적풍모에 대한 이야기를 수많이 들은 사람이다.

어느해인가 그가 조선의 한 중앙병원을 돌아볼 때였다.

그곳에서 그는 어느 한 병력서를 보게 되였다. 거기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평양으로부터 수백km나 떨어진 단천지구에서 평범한 한 로동자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중태에 빠지게 되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은 로동계급의 세상인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를 소생시켜야 한다고 하시며

조선인민군 항공군부대의 직승기를 띄우도록 해주시였다. 그 직승기가 일기조건으로 도중에 착륙하게 되자 불리한 기상조건에서도 비행할수 있는 대형려객기를 띄워보내게 하시는 비상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그대로 불사약이 되여 죽음의 계선에서 헤매이던 그 로동자가 끝내 의식을 회복하고 대지를 활보하게 하는 기적을 낳았다.

총사장은 크나큰 충격에 휩싸였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단 말인가.

이것이야말로 신화에서나 볼수 있는 사랑의 전설이 아닌가.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하며 병력서의 다음장을 펼친 그의 놀라움은 절정을 이루었다.

—환자치료를 위하여 무어진 의료집단의 구성

원사, 교수, 박사 10여명

의사, 간호원 10여명

—환자치료에 사용된 약품의 종류

사향, 광폭항생제를 비롯한 고가약 72종

—환자에게 수혈한 피

근 6L

…

참으로 믿을래야 믿을수 없는 현실이였다.

그는 자기가 느낀 소감에 대하여 조선에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비서의 인민에 대한 사랑이 대하처럼, 봄날의 해빛처럼 차넘치고있다고, 바로 이 위대한 사랑을 원천으로 하여 조선에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사회가 일떠선것이라고 말하였다.

위인의 향기

위인에게는 위인만이 풍기는 고유한 향기가 있다.

력사기록을 들추어보면 위인의 징표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통찰력과 실천력, 담대성과 도량, 용맹과 지략들에 대하여서만 론의해왔지 인간고유의 향기에 대하여서는 별로 이야기된것이 없다.

인민의 령도자는 마땅히 인민의 모든 감정과 정서, 지향의 발현인 위인적향기의 체현자여야 한다.

오늘 조선인민은 이 진리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풍모에서 확증하고있다.

만민의 매혹을 자아내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위인적향기는 곧 인간성이다.

봄빛같이 따사로우신 인정미, 바다같이 넓으신 정서, 가을같이 풍만하신 감정, 호수처럼 깊으신 생각,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처럼 너그러우신 마음.

바로 이것이 만민의 심장을 끓어번지게 하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특유의 매력적인 향기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덕을 그대로 이으시여 강국건설대전의 모든 전선에서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 누구의 가슴에 그늘이 질세라 보살펴주도록 하시며 일군들이 인민들의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는 문제를 중요한 국책으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다.

그이께서는 사랑하는 병사들을 자신의 전우들이라 친근히 불러주시며 인민들과 전우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싶은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자주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때문에 그이를 뵈옵는 사람은 순식간에 심장을 사로잡는 신비로운 친화력에 온넋을 송두리채 맡기게 되는것이다.

조선인민의 가슴에 새겨진 그이의 모습은 언제나 이처럼 밝게 웃으시는 모습이다.

태양이 세상천지를 살리는 빛과 열이라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인간의 정서적감정의 발현인 사랑의 향기로 만민의 가슴에 해빛이 넘쳐나게 하고 그들의 심장에 불을 달아 일심단결의 대오를 이루게 하시는 위대한 혁명가, 걸출한 정치가,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의 기본사상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과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책임과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백배로 분발분투하여 올해의 전투목표들을 빛나게 완수하며 인민들에게 더 좋고 안정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자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령도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의의깊은 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는 온갖 역경을 맞받아 뚫고 사회주의위업을 강력히 전진시켜나가는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령도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의의깊은 회의이다.

당대회를 통하여 혁명의 새로운 발전단계의 목표를 제시하고 전원회의들에서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며 적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는것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방식이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는 제2차전원회의가 확정한 5개년계획의 첫해과업수행에서 무조건성과 철저성, 정확성의 기풍을 세우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들을 통하여 하반년도에 수행하여야 할 실속있고 동원적인 과업들과 실천적방도들이 충분히 토의되였다. 올해 시달된 주요국가정책적과업들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적문제들을 반영한 결정서와 전당, 전군, 전민이 올해 농사에 힘을 집중하여 알곡생산계획을 무조건 완수할데 대한 결정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실제적인 변화와 발전지향적인 결과를 이룩하기 위한 전투적기치로 된다.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의지가 힘있게 과시된 력사적인 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3 차전원회의는 그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려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의지가 힘있게 과시된 력사적인 회의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당이 인민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 든든한 기둥이 되여주고 늘 곁에서 고락을 함께 하며 인민의 복리를 위해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해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현시기 인민들이 제일 관심하고 바라는 절실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행조치를 취하도록 하시고 친히 서명하신 특별명령서를 발령하시였다.

가장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정책으로 수립하도록 한것은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을 조선혁명의 전진방식, 발전방식으로 내세우고있는 조선로동당만이 취할수 있는 조치이다.



근로단체들의 대회 진행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제 10 차대회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제 10 차대회가 2021년 4 월 27 일부터 29 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청년동맹사업정형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고 동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대책들과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2 차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토의하고 청년동맹의 명칭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고칠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앞으로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였으며 대회참가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절대충실하고 당의 위업수행에서 영웅성과 용감성을 남김없이 떨치려는 수백만 청년들의 신념과 맹세를 긍지높이 재천명하였으며 조선청년운동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다.



조선직업총동맹 제 8 차대회

조선직업총동맹 제 8 차대회가 2021년 5 월 25 일과 26 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직업동맹사업정형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고 동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 당 제 8 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2 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서 영웅적로동계급의 단결력과 직업동맹의 전투적위력을 힘있게 떨치기 위한 과업과 실천방도를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앞으로 서한을 보내시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서한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내용들과 대표자들이 제기한 창발적이며 건설적인 의견들이 보충반영된 결정서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제 7 차대회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제 7 차대회가 2021년 6 월 20 일과 21 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총결기간 녀성동맹사업정형이 전면적으로 분석총화되고 녀성동맹이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한 투쟁에서 혁명적녀성조직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과업과 실천방도들이 토의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제 7 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시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서한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내용들과 대표자들의 창발적이며 건설적인 제의들이 보충반영된 결정서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조선인민

경제건설에 힘을 넣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금속, 화학, 전력, 석탄공업부문에서는 현행생산과 함께 전망생산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해 분발하고있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주체철생산체계를 기술적으로 완성하고 능력을 확장하며 철강재생산을 늘이기 위해 긴장한 투쟁을 벌리고있으며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실제적인 변화, 발전지향적인 결과를 안아오기 위하여 헌신하고있다.

전력공업부문에서 현행생산과 함께 전망생산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을 립체적으로 전개하고있으며 석탄공업부문에서는 해당단위들과의 련계밀에 설비와 자재보장대책을 따라세우면서 석탄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가고있다.









과학기술발전을 힘있게 다그쳐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3 차전원회의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조선인민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인민경제계획완수의 지름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금속공업부문에서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삼화철생산계획을 반드시 수행하기 위해 힘차게 내달리고있으며 석탄공업부문에서 막장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창안도입하고 능률적인 기계설비들을 자체로 제작하는 등 여러가지 기술혁신사업이 진행되고있다.

전국각지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서로 공유하고 널리 보급하여 적극 도입하는 기풍을 세워나가고있다.

보건부문에서는 전국제약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되였으며 의료봉사의 질관리체계도입과정에 이룩된 경험이 일반화되고 치료예방단위들에 확대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육아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온 나라가 떨쳐나섰다.

평안북도, 함경북도를 비롯한 여러 도들과 수많은 공장, 기업소, 탄광, 광산들에서 탁아소, 유치원어린이수와 젖생산량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염소마리수를 늘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려 수많은 젖짜는 염소를 확보하고 어린이들에게 염소젖을 공급하고있다.

이 지역과 단위들에서는 젖제품수송을 위한 륜전기재, 젖보관과 운반에 필요한 설비들을 원만히 갖추고 자기 단위의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정상적으로 먹이기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충분히 갖추어놓고 생산을 늘여나가고있다.







고고학분야에서 이룩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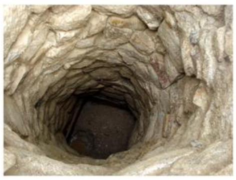
림흥동일대에서 고구려유적발굴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연구집단은 평양시 대성구역 림흥동일대에서 고구려시기의 력사유적과 유물들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발굴은 1991년부터 2020년기간에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되였는데 비교적 큰 규모를 가진 건물터의 일부, 2 개의 고구려우물(1, 2 호), 벽돌로 축조한 1 개의 지하구조물과 수많은 기와, 질그릇을 비롯한 여러 유적유물들이 나왔다.

발굴된 유적유물들가운데 주목되는것은 1-3 세기의 질그릇쪼각들과 기와쪼각들, 4 세기에 해당하는 별궁이나 관청급의 건물터, 3 세기와 6 세기에 건설된 우물들, 7 세기전반기에 해당하는 19 줄짜리 고구려바둑판쪼각들과 질그릇들이다.

이것은 고구려사람들이 1 세기경부터 평양지역에 진출하여 림흥동일대를 중요한 지역적거점으로 삼았고 6 세기중엽 새평양성으로 옮겨간 다음에도 림흥동일대를 중시하면서 계속 살았으며 우수하고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림흥동고구려우물1호의 내부



림흥동고구려우물1호의 4각방틀



림흥동고구려우물1호에서 발굴된 질그릇쪼각들



림흥동고구려우물1호에서 발굴된 기와쪼각들



림흥동고구려우물1호에서 발굴된 쇠가마쪼각들



림흥동고구려우물2호의 8각방틀



림흥동고구려우물2호에서 발굴된 질그릇쪼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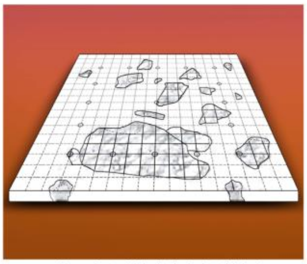


림흥동고구려우물1호에서 발굴된 나무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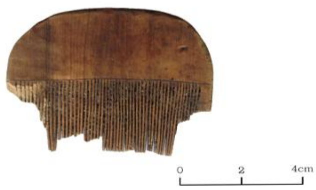




림흥동고구려우물2호의 내부



림흥동고구려우물1호에서 발굴된 돌바둑판쪼각을 복원한 바둑판



림흥동고구려우물2호에서 발굴된 참빗

더 높이 발양되는 조선의 국풍

조선의 국책

조선은 인민을 가장 신성하고 전지전능한 존재로 떠받들고 보살피는것을 제일가는 국책으로 내세우고있다. 당과 국가의 모든 정책이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여 작성되고 정권기관들의 활동도 철두철미 인민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진행되고있는것이 공화국의 현실이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가 최우선, 절대시되고 모든 사업에서 인민의 평가가 기본으로 되고있는 조선에서는 인민우에 군림하고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그 어떤 반인민적인 요소도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지난해 조선에서는 련이어 들이닥친 큰물과 태풍으로 집과 가산을 잃은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어 화를 복으로 전환시켰다.

올해에도 조선에서는 여러가지 객관적요인으로 하여 애로가 겹쌓이는 속에서도 평양시 송신, 송화지구에 1 만세대살림집건설을 비롯하여 수도와 지방에 수많은 살림집들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더 훌륭한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 모든것은 결코 남들보다 자금이나 자원이 많아서가 아니다.

그것은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국책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기때문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로 련이어 진출

함경남도, 함경북도와 라선시를 비롯한 온 나라의 수많은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들로 련이어 탄원하고있다.

청년들속에서 발휘되고있는 아름다운 소행은 그대로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길우에서 청춘의 리상과 포부를 꽃피우려는 미더운 새 세대들의 불타는 심장속에 간직된 혁명열, 투쟁열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

귀중한 청춘시절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아낌없이 바치는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행복으로 여기는 미더운 청년들의 모습에서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의 밝은 래일을 확신하고있다.







늘어나는 사회주의애국공로자대렬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이후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전국적으로 금속, 석탄, 전력, 화학, 건재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많은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이 배출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과감한 돌격전이 벌어지고있는 오늘 조선인민은 누구나 시대의 본보기, 참된 인간전형들앞에 자신을 세워보며 투쟁의 날과 날을 혁신과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지배인 김명환 2018.7.9


재령군 북지협동농장 제1작업반
반장 윤룡석 2018.6.26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4.5
소대장 고경찬 2019.6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2.8직동청년탄광
9갱 갱장 한승찬 2019.6.24


황해북도인민병원 안과
책임의사 김명월


세포군산림경영소
지배인 박병준


평양기계종합대학 자원개발기계공학부
연구사 조수경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직포종합직장 1직포직장
직포공 리명순


원산발전소건설사업소
지배인 조성구


김책공업종합대학 금속공학부
강좌장 김인규

우리와 나

조선인민은 모두가 서로 돕고 이끌며 의좋게 살고있다.

화목한 생활은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에서만 볼수 있는 고상한 생활이며 조선인민들속에서만 꽃필수 있는 아름다운 생활이다.

조선에서 사람들사이의 관계는 《너》와 《나》를 하나로 결합시킨 《우리》의 관계로 되여있다. 《우리》, 이 말속에는 조선의 참모습이 그대로 비껴있다.

매 개인의 운명이 조국이라는 큰 집단속에서 서로 뗄수 없이 련결되여있기에 조선인민은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을 가장 고상한 도덕으로, 참다운 생활로 여기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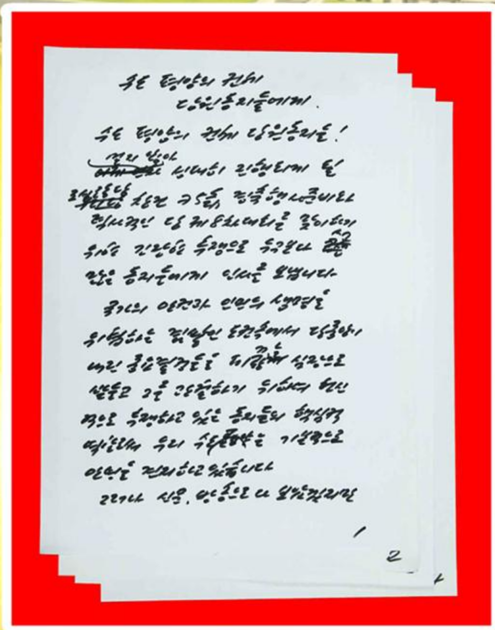
위기일발의 순간 혁명동지를 위하여 목숨도 기꺼이 바치고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학생을 업고 매일 등교길을 오가며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하는것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수없이 꽃펴나고있다.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것은 조선의 아름다운 국풍이다.





최정예수도당원사단의 영웅적위훈은 조선로동당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동지들에게.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동지들!











당중앙의 위대한 호소에 심장으로 화답

제1수도당원사단 제2수도당원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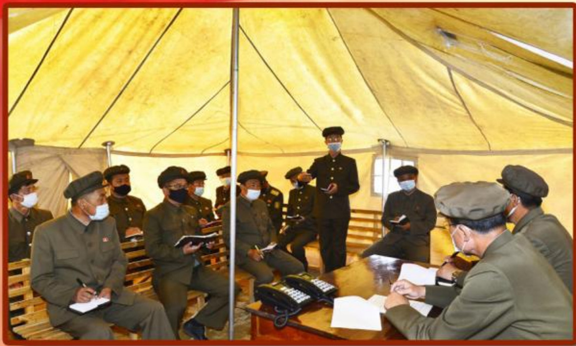




당중앙의 위대한 호소에 심장으로 화답

제1수도당원사단























당의 결심은 곧 우리의 실천

















당의 결심은 곧 우리의 실천

















고 향 소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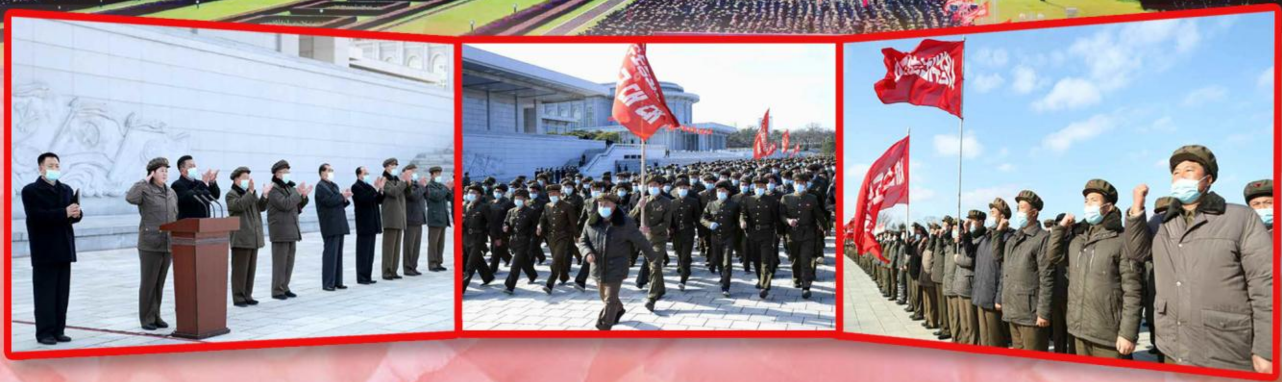






고 향 소 식










승리의 보고

시대어

당의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

시대어 《당의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는 오직 당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옹호하는 조선인민을 표현한 시대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력사의 돌풍속에서 우리 당이 믿은것은 오직 위대한 인민뿐이였으며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둘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였습니다.》

시대어 《당의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에 담겨진 진수는 조선로동당이 믿는것은 오직 위대한 인민뿐이라는것이다.

당의 지지자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찬동하고 받들어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당의 조언자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며 당의 방조자는 당의 혁명위업을 도와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그 작성에 도움을 주며 당의 위업을 실천으로 받들어온 조선인민을 가리키는 말이다.

전지전능한 인민대중의 힘은 조선로동당이 자주, 자립, 자위의 강대한 사회주의성새를 일떠세우고 제국주의의 악랄한 봉쇄속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놓을수 있게 한 기적의 원천이다.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오직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한 여기에 조선로동당이 력사의 모진 광풍에도 흔들림없이 혁명의 방향타를 억세게 틀어쥐고 사회주의위업을 줄기차게 이끌어온 근본비결이 있다.

시대어 《당의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에는 혁명은 단결이고 단결은 승리라는 주체의 원리가 맥박치고있고 조선로동당을 인민을 위하여, 인민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투쟁하는 불패의 혁명적당, 참다운 령도적정치조직으로 건설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이 응축되여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유산인 일심단결을 옹호고수하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가 담겨져있다.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영상

시대어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영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시대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사회주의조선의 영상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새해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시대어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영상》에 담겨진 진수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조선식사회주의를 수호하시고 세계만방에 빛내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야 한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영상이시다.

오늘 사회주의조선이 강대하고 앞길이 밝고 창창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명성과 절대적인 권위가 있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바쳐 이룩하신 고귀한 유산이 이 땅우에 만년초석으로 굳건히 자리잡고있기때문이다.

시대어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영상》은 조선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나라로 강화발전시키며 수령님들의 강국념원, 애국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려는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혁명적의지를 반영하고있다.

당중앙의 뜨락

시대어 《당중앙의 뜨락》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는 당중앙위원회가 전체 조선인민이 피끓는 심장을 이어놓고 뜻과 정을 함께 하는 성스러운 곳이라는것을 표현한 시대어이다.

시대어 《당중앙의 뜨락》에 담겨진 진수는 조선로동당의 품을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살 진정한 어머니품으로 여기고 항상 당과 심장의 말을 나누면서 백옥같은 충성을 다하는 여기에 인생의 참된 보람과 행복이 있다는것이다.

시대어 《당중앙의 뜨락》에는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의도가 담겨져있다.

백두청춘대학

시대어 《백두청춘대학》은 조선청년들의 신념과 의지를 검증하고 억세게 벼려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상징하는 시대어이다.

시대어 《백두청춘대학》의 진수는 청년들이 청춘시절을 철저히 혁명학교과정, 사상단련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백두청춘대학》은 청년돌격대원들이 스스로 수령결사옹위, **김정일**애국주의, 자력갱생과 결사관철, 혁명적동지애와 집단주의, 혁명적락관주의의 학과목을 선정하고 사상정신적으로 수양하고 심신을 단련하여온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이다.

시대어 《백두청춘대학》에는 번쩍거리는 도시의 번화가가 아니라 인적도 없는 심심산골에 솔선 달려와 당의 뜻을 꽃피우며 거기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청년들, 스스로 《백두청춘대학》이라는 과정안을 만들고 매일매시각 량심의 점수를 매기면서 자신을 혁명적으로 수양해나가는 청년들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담겨져있으며 모든

청년들을 백두의 칼바람맛, 천지물맛, 풀뿌리맛을 알고 혁명선렬들의 넋을 소중히 간직한 사상정신력의 강자로 키우기 위한 근본방도가 명시되여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결사대, 선봉대

시대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결사대, 선봉대》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밝힌 시대어이다.

시대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결사대, 선봉대》에 담겨진 진수는 모든 청년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구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조국을 빛내이고 시대를 떨치는 청년영웅이 되여야 한다는것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결사대, 선봉대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가장 어려운 전구들에서 돌격로를 열어나가는 청년들을 가리킨다.

시대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결사대, 선봉대》에는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키우고 그들의 애국충정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진속도를 가속화해나가려는 조선로동당의 믿음과 기대, 의지가 담겨져있다.

사회주의리상향

시대어 《사회주의리상향》은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되고 인민의 리상과 꿈이 현실로 실현된 지역을 가리키는 시대어이다.

사회주의리상향은 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인민의 리상향이다.

시대어 《사회주의리상향》에 담겨진 진수는 나라의 모든 지역을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되고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락원으로 전변시켜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대건설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2019년 12월 2일에 준공된 삼지연시 중심지구는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진 사회주의리상향이다.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자리잡고있는 영광의 땅 삼지연시가 현대문명이 응축된 사회주의리상향,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전변됨으로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려는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힘있게 과시되고 당의 지방건설구상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본보기가 마련되였다.

사회주의만복

시대어 《사회주의만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조선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려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투쟁목표를 담고있는 시대어이다.

시대어 《사회주의만복》에 담겨진 진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과 국가사업의 근본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인민이 리상하는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야 한다는것이다.

사회주의만복은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에 의하여 세상에 부럼없는 생활을 누리는 조선인민의 행복상이다.

시대어 《사회주의만복》에는 인민의 세기적인 꿈과 리상을 기어이 실현하여 조선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려는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투철한 립장이 반영되여있다.

좌 담

아름다운 인간관계

해빛처럼 공기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생의 활력소가 바로 사랑과 정입니다.

하기에 사람들은 서로 도와주고 위해주며 따뜻한 정과 사랑속에 사는 사회를 리상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한 사람들은 다 조선에서 정과 사랑으로 맺어진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꽃핀 사회현실을 보고 간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조선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하여 사회주의조선의 현실을 더 알고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또다시 조선사회과학자협회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였습니다.



사회자(천순금): 해당 사회의 진보성은 그 사회의 인간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평가할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조선의 사회주의현실에서 공감하게 되는 측면은 누구나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의 리익, 다른 사람들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주는 참다운 인간관계입니다. 그에 대하여 사실자료를 들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락명성: 예.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와 집단의 리익,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전 먼저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자식들이 탄원해나가도록 하는 수많은 부모들에 대하여 말하고싶습니다. 장기간의 제재와 봉쇄로 인하여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조선로동당은 당 제 8 차대회를 열고 사회주의의 획기적전진을 이룩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웅대한 국가건설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당의 구상을

꽃피우기 위하여 수천명의 청년들이 광산과 탄광, 농촌, 사회주의대건설장, 섬마을과 산골학교들에 탄원해갔는데 그들뒤에는 훌륭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김성희: 저는 자식들을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시킨 부모들의 심중에는 자식들의 삶을 지켜주고 보살펴준 고마운 당과 국가의 배려와 기대에 보답하고 인생의 꽃시절, 청춘시절에 값높은 삶의 자욱을 남기기를 바라는 뜨거운 사랑과 진정이 간직되여있었다고 봅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 제 8 차대회이후 온 나라 청년들이 일시에 궐기해나서고 단 몇개월사이에 수천명의 남녀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들에 용약 탄원진출한것은 전시에 화선에로 달려나가 적의 화점앞에 한몸을 서슴없이 내댄것과 같은 영웅적소행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습니다.

사회자(천순금):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바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어렵고 힘든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것이 범상하고 당연한 일로 되고있지 않습니까?

문삼성: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워 나라와 인민앞에 어엿하게 내세우는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사회에서는 극히 범상한 일로 되고있습니다.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던 시기 수십명, 지어 백여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명의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처녀어머니》도 있습니다. 어느 군의 로동자부부는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 도애육원을 찾아가 십여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오고 일어나지 못하는 불구소년까지 데려와 키우는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하였습니다. 제자식도 아니고 불구인 남의 자식을 데려다 키우는 그들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에게 그들부부는 무거운 짐인줄 알면서 어떻게 나라에 떠맡기겠는가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사회자(천순금): 자기 하나의 향락과 치부,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개인주의사회, 사랑과 정이 사라져버린 차거운

세상에서는 리해할수도, 상상할수도 없는 주체조선의 참모습입니다. 부모없는 자식들을 키우는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지만 돌볼사람이 없는 늙은이, 영예군인들을 극진히 위해주는 미풍도 높이 발휘되고있지 않습니까?

김성희: 영예군인들을 위한 당과 국가의 혜택과 배려는 참으로 큽니다. 당과 국가가 아끼고 내세워주는 영예군인들을 위해 한생을 바쳐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영예군인들을 늘 관심해주고 그들이 불편없이 생활하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의 마음도 아름다운것이지만 그들과 가정을 이루고 일생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고결한 마음과 헌신은 말로 다 표현할수 없는것입니다.

탁명성: 영예군인의 안해가 되고 남편이 되여 영예군인과 한생을 같이하며 건강을 돌보는 많은 사람들속에는 어느 한 탄광의 부원으로 일하는 김춘화녀성도 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운신도 못하는 남편을 거들어주고 그의 건강을 위해 약초도 마련하고 치료도 하는속에서 두 아들을 어엿하게 키워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웠습니다. 그는 수십년세월 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 하며 힘든속에서도 직장의 일을 착실히 하는것과 함께 탄부들의 로동조건개선을 위해 헌신하여 사회주의애국공로자의 영예도 지니였습니다.



문삼성: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대는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들도 꼽을수 없이 많습니다. 물에 빠진 여러명의 학생들을 구원한 녀교원들을 비롯하여 사경에 처한 사람들을 생명을 내대고 구원해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급환자를 위해 피와 살을 바치고 지어 자기의 눈결막까지 떼서 환자의 눈에 이식해주는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성희: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온갖 성의를 다하는 아름다운 소행도 많이 발양되고있습니다. 지하철도와 전차안에서

쓰러진 사람들을 즉시 병원에 후송하고 가족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들, 빨리 병을 털고 일어나라고 갖가지 보약과 식료품을 마련해주고 가정사도 정성껏 돌봐주는 소행들은 이제는 너무도 평범하고 당연한 현상으로 되고있습니다.

사회자(천순금): 하루도 아니고 수년세월, 수십년세월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바치고 지어 생명까지 내대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준다는것은 말처럼 쉬운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여 어렵고 힘든 때에도 조선인민이 서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정을 주고받으며 화목하게 살아가고있는지 그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요.



문삼성: 용용한 대하에는 시원이 있고 아름드리거목에는 뿌리가 있는 법입니다.

조선인민이 이렇듯 아름다운 인간들로 되게 된것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복종시킬것을 요구하는 주체사상이 구현된 사회주의조선에서 태여나 살고있기때문입니다.

탁명성: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현실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에 의하여 육성되고 마련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친근히 보살필데 대하여 거듭 가르쳐주시고 몸소 인민의 아픔을 가셔주고 그들에게 하나의 기쁨과 행복이라도 더 주시려고 끝없는 로고와 헌신을 바치고계십니다.

김성희: 자식들의 눈동자에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비끼고 그들이 부모를 닮으며 성장하듯이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이 비길데 없이 깊고 뜨거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조선에서는 무한한 인정의 세계가 펼쳐지고있습니다.

사회자(천순금): 옳은 말씀입니다. 조선인민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민을 무한히 존경하고 한없이 사랑하며 정히 받드는 조선로동당의 모습,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모습을 뵈옵게 됩니다. 아름다운 현실,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펼쳐진 조선은 참으로 전도양양하고 누구나 동경하는 인류의 리상향입니다.

실화

유명해진 지휘자

인훈

1998년 12월 6일.

관람자들로 꽉 찬 뉴욕의 어느 한 극장에서 우륵교향악단 단장 리준무는 위인숭배의 격정을 안고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지휘하였다. 연주가 끝나자 장내에서는 극장이 떠나갈듯 박수와 환호소리가 터져나왔다. 관람자들은 이토록 힘이 있고 기백이 넘치면서도 숭엄한 감정이 솟구쳐오르게 하는 음악이 이 세상에 있다는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분명 위인에 대한 칭송의 노래이다. 이 노래는 어느 분에게 드리는 송가인가. 무대에 올린 음악가운데서 이 노래만큼 심금을 울리는 노래가 없다.

공연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지휘를 한 리준무를 찾아와 훌륭한 노래를 지휘해준데 대하여 격려하였다. 그리고 위대한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알게 해준데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였다.

여기서 힘을 얻은 리준무는 그후 뜻깊은 계기들마다에서 벌가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에서 **김정일**장군송가음악회를 조직하였다.

미국에서의 송가연주활동은 순탄하게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번은 공연을 시작하려는데 지휘를 맡았던 사람이 갑자기 지휘를 포기하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된거야?》

《지휘자가 협박을 받았다누만.》

그런것은 어떻게 빨리도 알려지는것일가.

이때 주저없이 무대로 달려나가 지휘봉을 높이 드는 사람이 있었다. 단장 리준무였다. 비장한 각오가 그의 온몸을 휩쌌다.

그의 지휘봉이 연주가들의 심장을 찌르듯 갑자기 우뢰소리같은 음악이 꽝- 하고 쏟아져나왔다.

위인송가가 높이 울려퍼졌다.

이 순간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총구가 그를 겨누고있는지 어이 알랴. 그 총구를 폐부로 느끼면서도 지휘봉을 억세게 틀어잡고 휘두르는 그의

심장에 고동친것은 오직 하나 목숨을 바쳐서라도 태양찬가를 이 땅에 높이 울려야 한다는 각오였다.

관중은 손에 땀을 쥐고 공연을 관람하였다. 다행히도 공연 전기간 다른 일은 없었다. 적대세력들도 사회적여론이 두려웠던지 공개적인 자리를 피한것이다.

리준무는 유명해졌다.

세계 10 대교향악단의 하나로 2 백수십년의 력사를 가진 로씨야국립교향악단의 지휘단상에 올랐을 때에도 이때처럼 유명해지지는 않았다. 벌가리아 방송교향악단도 지휘해보았고 1995 년 5 월에 있은 국제교향악축전에 초청되여 브람스의 《교향곡 2 번》도 지휘하였지만 리준무가, 그의 우륵교향악단이 이처럼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었다.

아마도 그것은 그의 높은 지휘능력과 함께 죽음을 맞받아나가는 불굴의 신념과 의지,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는 그의 정신세계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였기때문이리라.

서방음악을 주로 다루던 우륵교향악단이 온갖 류형의 음악이 범람하는 미국전역에 알려지게 된것은 진보적인류의 태양찬가를 연주하기 시작한 그때부터였다.

우륵교향악단 단장 리준무는 위인숭배에 대한 자기의 열렬한 감정을 도서 《내마음의 교향곡》에 담아 2012 년에 출판발행하였다.



생각의 경계

렴정실

평양에 온 미국의 한 관광객이 있었다.

친구들이며 동료들이 왜 하필 적대국에 관광을 가는가고 할 때에조차 바로 적대국이기때문에 그리로 간다고 으시대며 내친 걸음이였지만 그는 평양에 체류하는 기간 여기저기 참관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기를 몹시 두려워하였다.

어느날 그는 안내성원과 함께 당창건기념탑을 참관하게 되였다.

기념탑앞에 도착하니 한 녀강사가 마중나왔다. 그의 동그스름한 얼굴에 꽃같은 웃음이 비끼였다.

《환영합니다!》

안내성원이 미국에서 왔다고 말을 했을것이 뻔한데 자기를 보고 환영한다고 하니 녀강사는 하느님의 사도가 아니면 위선자가 분명하지 않는가.

강사는 탑을 두른 원형띠의 안쪽에 새겨진 글발을 가리켰다.

《저 구호를 보십시오. <자주성을 옹호하자!>.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당입니다. 우리 당이 하늘처럼 여기는 존재는 바로 인민입니다.

하기에 우리 당은 인민의 리익, 인민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안팎의 적대세력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하는것입니다.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로동당의 일관한 대외정책리념이며 세계자주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변함없이 견지하고있는 근본립장입니다. …》

강사의 유연한 목소리는 적대국에서 온 관광객의 가슴에 따뜻한 봄바람처럼 스며들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투쟁목표이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입니다.》

강사의 눈에는 적의가 전혀 없었다.

평범한 녀강사의 마음속에는 조선로동당의 정책이 꽉 차있어 한없이 넓은 아량과 리해력의 바다가 출렁이고있었다.

저 탑만 보아라, 마치와 낫, 붓!

조선로동당의 모습이 다 비껴있지 않는가.

첫 인사를 할 때에조차 꾹 다물고있던 그의 입이 드디여 열렸다.

《나는 오늘 조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선사람들은 정말로 강의하고 선량한 인민입니다.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훌륭한 기념탑앞에서 아름다운 당신의 눈빛을 통하여, 당신의 목소리를 통하여 알게 된 조선로동당의 훌륭한 대외정책리념앞에 머리를 수그리게 됩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저지른 씻을수 없는 죄악을 씻는 심정으로 나는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것입니다.》

불안과 공포로 이지러지던 그의 생각이 맑은 공기가 흐르는 아름다운 세계로 한계단 뛰여올랐다.

이 순간 당창건기념탑은 그의 생각의 경계였다.



